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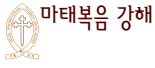
§ 2014년 포어 §

그리스도인,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 (막10:45)

十 행동 지침十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 되는 교회
- 2. 다음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인 : 박노철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or.kr



지상에서 본 천상

(마 17:1-13)

본문은 높은 산에 오르신 예수님의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 되셔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1절). 마태는 이 사건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로부터 책망을 받은지 엿새 후라고 분명히 날짜를 기록하므로 이 사건이 실제 있었음을 강조합니다.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야고보가 본 이 장면은 지상에서 본 천상의 모습이었고 실로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1. 이루 말할 수 없는 천국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 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2절).

변형됐다(transfiguration)는 말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변화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변화산에서의 예수님 모습은 부활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얼굴이 해 같이 빛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장차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인생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죽지만 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과 동시에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동안 이 세상에 살다가 모두 죽음의 문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죽음의 문을 통과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에서 머물고 있는 시간들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모두가 받을 부활의 몸과, 의로운 옷과, 영원복락을 누리게 될 그 영광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모든 성도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3절).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역사는 율법을 완성하시는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율법을 받은 모세가 등장합니다. 또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불병거에 들려 승천하신 분으로 성경학자들은 엘리야가 다시 와서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런 의미로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나타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세와 엘리야 같은 분들이 구약에 죽어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 받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3. 당분간은 여전히 지상에서 살아야 한다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본 베드로는 초막을 짓고 그 곳에서 살겠다고 합니다(4절). 우리가 갈 천국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곳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곳입니다. 더 이상 아프거나 늙지 않고 더 이상 이별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가 되기까지 여전히 지상에서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 역시 예수님과 함께 아직도 할 일이 많은 지상으로 내려와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 위에 있기를 소원했으나 산 밑으로 내려가야 했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교회 밖으로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다가올 천국의 영광을 위해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The Heaven Seen On the Earth

(Matt.17:1-13)

In the text, it is written that the body of Jesus climbed up a mountain shined with glory and transfigured before his disciples, appearing Moses and Elijah talking with Jesus (v.1). The reason why Matthew said that this incidence was clearly written at the sixth day after Peter was rebuked by Jesus emphasizes that it was a real incident.

The moment that Peter, John and James saw heaven seen from the ground and is an extraordinary incident.

1. The indescribable glory of the Kingdom of heaven is waiting for us

“There he was transfigured before them. His face shone like the sun, and his clothes became as white as the light” (v. 2).

It means that the word, transfiguration has completely changed in another dimension. The appearance of Jesus on the high mountain was a moment of resurrection. Since Jesus appeared very glorious, His face shone like the sun. Just as Jesus rose from the dead with the glorious appearance, so we also will have risen from death.

Human beings die without exception but Christians death was not the end. Upon dying, we will wear the body of resurrection. We, for a while, will live in this world and all of us will pass through the gate of death. From the moment when we pass the gate of death, we cannot imagine how wonderful and glorious time we have to stay in God's Kingdom, and we cannot say how happily we enjoy the eternal happiness and comfort, the body of resurrection that we receive, righteous clothes, when Jesus will come again.

2. We will meet all Christians

“Just then there appeared before them Moses and Elijah, talking with Jesus” (v. 3).

Jesus talked with Moses and Elijah on the high mountains. The salvation work of Jesus' cross was to accomplish the law. So there appeared Moses who received the law from God.

And then biblical scholars believed that Elijah did not experience death but he ascended into the heaven on a chariot of fire, and he would come to the earth again and prepare a road for Jesus. In this sense, there appeared Elijah with Moses before Jesus at that ti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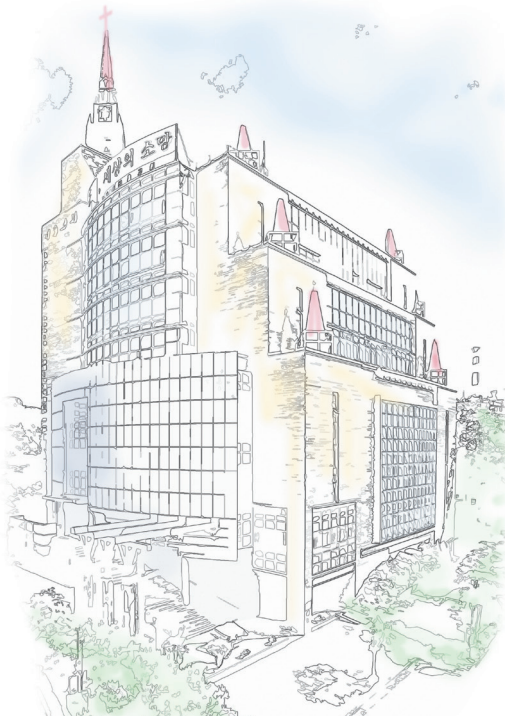
3. For a time we should still live on the

earth

Peter who saw Jesus' figuration on the high mountain said that he would build three shelters and live there (v. 4). The kingdom of heaven that we enter is very good place beyond words. It is the place where Jesus wipes our eyes. There are no more sickness, agedness, and farewell. However, we should still live on the earth, until our time comes. Peter also must had come to the earth where there are many works to do in the world.

My beloved Christians,

Like Jesus' disciples who wanted to stay on the mountain but should go down the mountain, we must go out the church, and bear the role of light and salt. For the glory of the kingdom of heaven to come, I sincerely pray that you will have victory every day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이웃과 함께하는 2014 사랑의 바자

사랑의 바자, 4일 앞으로!

25일(목), 26일(금) 양일간

온 교인이 기도와 수고로 준비한 2014 사랑의 바자(위원장 : 서문석장로)가 금주 25일과 26일 양일간 열린다. 바자는 25일(목) 오전 10시 교회정문에서 내외빈을 모시고 개회예배에 이어 테이프커팅으로 개장하여 26일 오후 6시 폐회예배로 끝난다.

매장의 위치는 1층로비에는 액세서리, 화장품, 생활소품, 교회 앞마당에는 농축산물, 과일, 공산품들이 자리하였으며 2층에는 헌옷과 일부 여성의류, 7층에는 브랜드 여성의류가 있으며 8층에는 먹거리, 9층에는 카페가 운영된다.

그동안 보관문제로 공급이 부족했던 호박식혜가 냉장차량을 확보하였으며 다양한 디자인과 색상의 프렌치볼 머그컵, 가격적인 가격의 선글라스와 영원 무역의 아웃도어 의류가 히트상품으로 회자되고 있으며, 먹거리로는 매운부추전과 쉐러드바가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어서 풍성한 잔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바자자선음악회가 성도들과 많은 VIP들이 참여하여 성황리에 마쳤으며 이웃과 크게 소통하는 계기가 되었다. 사랑나눔 A+ 캠페인 1%나눔운동과 10%절제운동도 한달간의 활동을 마치고 오늘 마감되었다. 참여할 성도들은 다음 주까지 현금함에 현금하면 된다. 바자 기간중 이벤트의 하나로 다락방원들이 바자현장에 모여 사진을 찍어 카톡으로 이름과 함께 본부(010-2211-2993)에 보내면 많이 참석한 다락방을 뽑아 푸짐한 상품을 시상한다. 많은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

2014 사랑의 바자는 "이웃과 함께하는 2014 사랑의 바자"를 표어로 1)불우이웃 및 탈북난민 돕기, 2)동남아 및 아프리카의 생명의 우물파기 3)살리당 후원 및 중앙아시아 선교를 목표로 한다.

목사님, 궁금해요!

이종운 목사 성경난해구절 해설(146)

(문 146) 다니엘의 일흔이레를 기한으로 정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답) 단9:24에 있는 70주 예언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예언 중 하나입니다. 이 부분은 구약 성경 중 가장 어렵고 중요한 장 절 중 하나입니다.

전통적으로 이것은 그리스도의 초림을 가리킨 것으로 그 중심점은 그의 죽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의해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사건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평주의 학자들은 메시아보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가리킨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 주전 6세기의 다니엘서가 위작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같은 학설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는 칠십 이레를 상징적으로 보아 70년 바벨론 포로이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구원을 성취하실 기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세대주의 학자들은 이레를 7년으로 보고 칠십 이레는 490년인데 그 칠십 이레가 주전 445년 곧 아다사스다왕 20년에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세우신다고 주장합니다.

'일흔 이레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단9:24) 이는 하나님백성의 회복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이 작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포로70년이 끝나고 또 하나의 70년으로 표시될 놀라운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대가 메시아로 말미암아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의 구속사업이 전개된다는 것입니다.

일흔 이레에서 이레의 히브리어는 일곱들이라는 뜻으로 일곱들 그것들의 칠십입니다. 칠십 이레를 보통 여성명사 쇠부오드인데 남성명사 쇠부임 즉 일곱들(7의 복수)이란 의미를 가졌습니다. 이 말은 주간이라는 시간의 길이가 아니고 일곱들이란 숫자가 상징하는 것은 7년을 의미합니다.(Calvin, Hengstein berg) 7년씩 일곱 번 지나서 임하는데 그때는 모든 부채도 탕감해 주고 종도 해방시키는 등 모두 속량하는 해(年)도 됩니다.

칠십 일곱들은 문자적 년대보다 그 기간이 긴 것을 의미함으로 하나님만 아신다는 것입니다. 창조이후 7수는 항상 하나님의 활동을 의미하는 상징수로 칠십 이레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역의 완성기간을 비유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작정하신 칠십 일곱들은 그의 구속사업의 완성을 위하여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 작정은 하나님의 완전히 지혜로우신 섭리로 정한 것이므로 그 기간이 얼마나 오래인지는 하나님만 아시는 것입니다.

(다음 주 계속)

제45회 목회자 신학세미나 『목회의 심장이 다시 뛰다!』

10월 30일(목)~31일(금) 오전 10시~오후 6시

제45회 목회자신학세미나가 10월 30일(목)~31일(금) 서울교회에서 열린다. 이번 주제는 '목회의 심장이 다시 뛰다'이며 강사는 D.A. Carson 박사(트리니티 복음주의 신학교), 박영선 목사(남포교회), 한 흥 목사(새로운교회), 최갑종 총장(백석대), 박수암 명예교수(장신대)이며 통역으로 박노철 담임목사가 선다.

강의 주제는 D.A. Carson 박사의 「목회와 복음」, 박영선 목사의 「목회와 설교」, 한 흥 목사의 「목회와

리더십」 최갑종 총장과 박수암 교수의 「목회와 종말론」이다. 신청기간은 10월 1일(수) ~ 10월 25일(토)까지이며 등록회비는 사전등록은 20,000원(교재, 중식/다과, 기념품 포함), 당일등록은 30,000원이며 신학생, 선교사, 미자립교회 목회자는 10,000원(사전, 당일 등록)이다.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서울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기 바란다.

*입금계좌: 하나은행 215-196427-02404 서울교회

전교인 성경암송대회

10월 17일(금) / 본문 : 요한1서 1~5장

말씀 중심의 사도적 교회를 지향하는 서울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읽고 듣고 실천하는 훈련의 일환으로 성경암송대회를 매해 열고 있다. 올해 성경암송 본문은 요한1서 1-5장으로 하며 예선은 10월 12일(주일) 교

육1국, 교육2-4국, 그리고 영어 암송부로 구분하여 각각 진행한다. 본선은 10월 17일(금) 오후 7시에 있으며 시상 및 발표는 10월 19일(주일) 오후 찬양예배 시에 있다. 성도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



2013년 성경암송에 참가한 바울선교회 회원들

해병대 중앙교회와 자매결연

오늘 찬양예배 시 / 예배 후 저녁식사를 겸한 교제(8층)

비전2020운동본부(부장 : 이갑진 장로)는 비전2020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해병대 중앙교회와 자매결연을 맺기로 하였다. 해병대 중앙교회는 해병대 신앙의 중심으로 매년 서울교회가 개최하는 '군선교 후원자의 밤'에 군 가족, 장병 및 군악대가 참석하여 성도들과 군선교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교회이다. 이에 자매결연을 맺음으로 서울교회의 군선교 행사를 제도화하고 상호교류를 원활히 하고자 한다. 자매결연식은 오늘 찬양예배 시에 있을 예정이다.



2014 사랑의 바자를 열며

절약의 실천과 나눔을 통하여



김광태 집사 (2014사랑의 바자자장)

2014 사랑의 바자 준비를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 아가페타운 건축 완공 이후 많은 시간이 지난 새로운 국면 속에서 숨가쁘게 달려온 뒤를 돌아보고 새로운 시각에서 바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의 입장에서 보면 바자의 일정이 너무 많아 보이고 복잡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취지를 알게 되면 생각보다 간단한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준비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랑의 나눔A+(A=agape의 준말)은 각기

- ① 1% 나눔운동: 교인사업체 및 외부기업 대상으로 월매출액 1% 또는 수입일부 기부
- ② 10% 절제운동: 교회학교 학생 대상으로 절제

생활을 통해 용돈등의 10% 기부

③ 사랑의 온도계: 교인사업체 및 교회학생 외 교인 대상으로 생명의우물파기, 살리당 후원, 선교 지원 목적에 따라 개별 기부로 나누었고

이와는 별도로 교인중 음악인을 대상으로 음악재능을 기반으로 수익금을 기부 하는 부문으로 구성 하였습니다.

쉽게 설명 드리면 금년의 방글라데시 단기 선교의 경우 여러 부문의 사역이 함께 동참하여 선교활동이 이루어 졌습니다. 의료사역, 미용사역, 어린이 사역, 식당사역, 기타 지원 사역 등이 그 예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바자 또한 교인 각자의 상황에 맞는 바자에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여러 부문으로 (기업체, 교회학교 학생, 성도, 음악인) 나눈 것이며 이를 통하여 최종목표인 불우이웃 및 탈북난민 돕기 / 생명의 우물파기 / 살리당 후원 및 중앙아시아 선교지원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또한 참여 업체를 정비하려는 새로운 시도를 하였습니다. 종전의 교구에서 바자기금을 모금하고 그 바자기금으로 물품을 구매하여 파는 형태는 교구 교인들의 바자기금 모금 부담 및 바자물품 구입으로 인한 이중 부담과 피로감이 커서 금년의 경우 교인사업체 또는 교인관련 생산 업체 물품을 바자를 통한 직거래 형태를 도입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직거래 판매 및 중간 마진의 기부를 유도 하였습니다.

바자의 가장 근본적인 취지는 모아진 금액의 크고 적음이 아닐 것임을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바자를 통한 절약의 실천과 나눔을 통하여 어려운 이웃(불우이웃, 탈북난민,우물파기,살리당 후원,선교지 지원...)을 도움으로서 모든 성도가 참여하여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바자가 되기를 소망 합니다.

▼사진: 이준태 집사



테너 류충기 집사



소프라노 최유현 집사



테너 유대왕 집사



바리톤 고성진 집사



그레이스 핸드벨콰이어



아멘관현악단의 목관 5중주



서울교회 솔리스트 앙상블



사명자대회를 준비하며

말씀, 기도, 전도로 새생명 잉태를...



송인수 집사 (사명자대회 차장)

교회 설립 50일전부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세워진 서울교회는 매년 이맘때에는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50일동안 말씀, 기도, 전도에 최선을 다하며 교회설립을 기념하고자 합니다.

새생명 축제를 10월 24일(금), 26일(주일)로 예년보다 한달 정도 앞당겨 시행함으로써 새생명 축제에 좀 더 집중하고 11월 넷째주일의 교회설립주일을 온전히 기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말씀 - 11월17일~11월22일까지 "복 있는 자의 삶" 이라는 주제로 특별새벽기도회로 말씀 잔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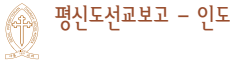
· 기도 - 10월5일24시 부터 시작되는 연속기도회는 자율참여로 진행되며 개인 뿐아니라 각부서별, 다락방별, 교회학교별 참여도 권장합니다.

· 전도 - 새생명 축제를 위해 5000명 이상이 복음을 전해들것이며 1000명 이상이 서울교회를 방문하게 될것이고 300명 이상이 등록하게 될것입니다.

서울교회 온 성도가 한가지 목표를 위해 한목소리로 기도하는 23년전의 모습이 다시한번 재현되기를 소원합니다.

본인이 정한 기도시간에 지정 기도장소에 도착해서는 먼저 말씀을 5장을 읽고 공동기도제목으로 기도한 후 작성한 VIP(새생명) 초대장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소외된자들을 위해, 부모를 위해,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말씀을 통하여 승리의 기쁨을 맛보며 주님께 영광돌리는 삶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2014년 사명자대회에 많은 적극적인 참여와 열렬한 기도의 후원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인생의 십일조



임홍수 집사 (16교구)

저는 금년 1월부터 인도 대륙의 동남부, 인도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이며 많은 자동차를 제조하는 회사들이 몰려있어 인도의 디트로이트라 불리며,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하나인 도마가 인도에 복음을 전도한 후에 순교한 첸나이라는 도시에서 남쪽으로 60 km 떨어진 시골 마을에 있는 DON BOSCO POLYTECHNIC COLLEGE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학생 수 700여명의 공업 전문학교입니다.

직장 생활의 마감을 앞에 두고 있던 지난 해 초부터, 퇴임 후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또한 40년간의 직장 생활 동안 받은 이루 헤아릴 수없이 많은 은혜를 기억하며 한편으론 몽고에서 사역하시는 의료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던 "인생의 십일조"라는 단어가 늘 제 머리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사실 2012년 여름에 참여하였던 캄보디아 단기 선교는 저에게 커다란 도전이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새벽 기도 시간에 많이 매어 달렸고 그 후 저는 주님의 섬세한 섭리 속에 여러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제 담당 과목은 전공인 자동차 공학, 품질 관리와 산업 공학입니다.

아무리 무더운 인도지만 주재원으로 근무할 때는 땀방 실비가 완벽한 방에서 더위를 전혀 모르고 지냈지만 지금은 머리 위에서 땀방 돌아가는 선풍기만을 의지한 채 바람에 날라가는 서류를 붙잡으려 다니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 때 받던 급여의 1%에도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을 받아 모두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모든 것에 쓰고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매주 토요일에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협력회사의 고문 역할을 통하여 받는 수입으로 인도의 가난한 교회의 비 새는 지붕도 수리하고 건축도 돕게 하시고, 현지인들과 똑같이 생활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한인 선교사님 가정도 돕고 또한 제가 출석하는 한인 교회의 선교 사역으로 미자립 현지 교회 30개를 지원하는 사역에도 동참하게 하십니다. 서울교회에서 부장으로 섬긴 영어예배부의 사역도 지금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매 주일, 모 교회의 3부 예배를 인터넷 생중계로 드리기 위하여는 최소한 5번 이상은 예배가 중단되는 것을 감수하여야 하며 조금만 비가 와도 길이 막혀 출근 길이 한 시간 이상 늦어지고, 온갖 쓰레기로 넘쳐나는 열악한 환경이지만 하루에 200루피(한화 3,400원)를 벌기 위하여 고된 농사 일에 땀을 흘리는 인도인들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어떻게 그들과 나누고,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그들에게 전파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하는 저의 하루, 하루의 생활은 감사할 뿐입니다.

초대합니다

서울교회 가정사역의 하나로 출발한 어머니 힐링스쿨을 지난 주에 개강하였습니다. 목회 상담과 심리치료를 접목한 수업으로, 어머니들의 내면의 성장을 꾀하고 가족간의 치유와 회복의 기회를 갖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어머니 힐링스쿨은 행복한 가정을 위하여 성경적인 어머니상을 제시하고 올바른 여성상의 회복을 통해 건강한 가정과 세상을 만들 고자 합니다. 서울교회에 마련된 열린 프로그램 어머니 힐링스쿨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 개 강 : 2014년 9월 16일(화)
- 대 상 : 어머니 누구나
- 교육기간 : 9월 16일(화)~11월 18일(화). 오전10:30~오후 12:30 (화, 10주간)
- 수강료 : 20,000원
- 강 사 : 박영준 목사, 한화선 목사
- 교육장소 : 서울교회 601호

중 정

- 이종윤 원로목사는 9월25일(목) 국민운동상임대표모임에 참석하고 대신교단 지도자협의회(장로)를 조직한다.
- 전시 : 16교구 이명아 권사 9.23~10.6 갤러리 보고재 삼성동 65-9 tel: 02) 545-0651
- 주일식당봉사 : 바울선교회 마리아전도회(9.21) 엘리야선교회 뱀뱀전도회(9.28)
- 금주의 식사 제공 : 홍창배 집사 권희순 권사 (자녀 결혼 감사하며) 교회 제공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모든 교구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준비하는 사랑의 바자(9/25-26)를 통해 선한 목적들을 넉넉히 이룰 수 있도록
2. 예정 99회 총회를 통해서 우리 교단이 하나가 되어 무너진 한국교회 성벽을 재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도록
3. 자매결연을 맺은 해병대 중앙교회를 통해 비전 2020 운동이 더욱 힘 있게 전개되도록

대한예수교장로회 제99회 총회

9월 22일(월) ~ 25일(목) 소망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제99회 총회가 9월 22일(월) 오후 2시부터 25일(목) 오후 7시까지 "그리스도인, 복음으로 사는 사람"(마 5:3-12, 창 12:1-3)이라는 주제로 소망교회에서 개최된다. 우리교회에서는 총대로 박노철 담임목사, 오정수, 노문환, 신용식 장로가 참석한다.

9월 성경통독자 시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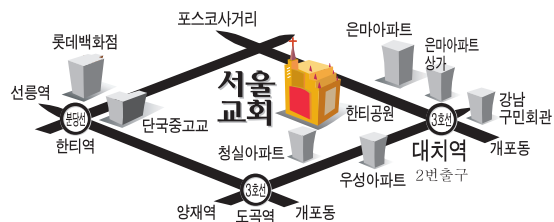
오늘 찬양예배시

- <성경필사 및 7독> 1명 : (9교구) 윤봉준 장로
 <5독> 1명 : (15교구) 이성자 권사
 <2독> 2명 : (7교구) 채복순 권사 (4교구) 임광우 집사
 <1독> 9명 : (4교구) 윤용미 권사, 홍광숙 권사 (7교구) 김영례 권사 (9교구) 박희서 집사, 이남성 집사 (11교구) 김태욱 권사 (12교구) 이인선 권사 (16교구) 임송자 권사, 송추월 성도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 당 II, III, IV 층
	II 부 예 배 (영어동시통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수 요 예 배	젊은이 예 배	오후 1시 30분	본 당 II, III 층
	I 부 예 배	오전 11시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본 당 II 층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